

“아웅산 수치 광주인권상 당장 박탈하라”

광주시민단체, 미얀마 군부 로힝야족 인종 청소 방조 비난 미·영 등 각국 명예시민증 잇따라 취소...광주시는 눈치만

국제연합(UN) 진상조사단 조사에서 지난해 8월 로힝야족 대량학살과 집단 성폭행을 자행한 미얀마 군부가 인종청소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아웅산 수치(Aung San Suu Kyi)에게 수여된 광주명예시민증과 광주인권상을 박탈해야 한다(광주일보 2017년 9월 12일자 7면)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수치는 미얀마 국가자문역을 맡고 있지만 군부의 인권 유린을 방조·복인한 장본인으로 지목돼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런 점을 들어 민주·인권·평화의 도시인 광주를 상징하는 광주인권상과 명예시민 자격을 당장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는 미얀마와의 외교관계 악화 등을 우려하는 정부의 눈치를 보느

라, 정작 지역사회의 여론은 무시하는 행태만 반복하고 있다.

UN진상조사단은 27일(현지시간) “미얀마군의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과 다른 다섯 명의 장성을 국제법에 따라 중범죄 혐의로 법정에 세워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미얀마 문명정부는 군부의 반인권 범죄를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을 포함해 전세계적으로 미얀마 군부의 로힝야족 학살 1주년(8월25일)을 계기로 미얀마 정부에 대한 규탄 집회도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아웅산 수치를 지난 2004년 광주인권상 대상자로 선정된 5·18기념재단과 지난 2013년 광주명예시민증을 수여한 광주시는 국내 외의 비난여론을 외면하고 있다.

? 로힝야족 학살 미얀마 군부가 지난 2016년 로힝야족 반군인 아라칸 로힝야 구원군(ARSA)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학살사태. 최소 6700명에 달하는 로힝야족이 학살 당하고 70만 명이 넘는 난민이 국경을 넘어 방글라데시로 도피했다.

지난해 로힝야족 학살이 알려진 이후 지역사회에선 아웅산 수치에게 준 광주인권상과 광주명예시민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지만, 5·18기념재단과 광주시 두 곳 모두 박탈 여부를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광주명예시민의 경우 ‘광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 조례’에 따라 담당부서가 안건을 올리면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으며, 광주인권상은 박탈에 관한 규정조차 없는 상황이다. 광주시 인권협력관실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친 남방정책과 맞물려 외교적 차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아웅산 수치가 UN조사를 거부했기 때문에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와 달리 세계적으로 그동안 아웅산 수치에게 수여했던 각종 상과 명예시민 자격을 취소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 홀로코스트 박물관은 2012년 아웅산 수치에게 수여한 ‘엘리 위젤 상’ 시상장을 철회했고, 지난해 말에는 영국 옥스퍼드시와 아일랜드 더블린시가 각각 명예시민권을 박탈했다. 지난 23일에는 영국 에든버러시가 2005년 수여한 명예시민권을 박탈하기도 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광주가 ‘인권의 도시’인 만큼 민간인 학살을 묵인한 아웅산 수치를 영인해서는 안된다”며 “광주인권상의 권위와 광주의 이미지 실추를 막기 위해서라도 아웅산 수치에게 수여된 광주명예시민 자격과 광주인권상을 당장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희 기자 kimyh@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02 | 해질 19:04 | 달뜨기 20:48 | 달짐 08:16

다시 찾아온 폭염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겠다.

광주	구름많음	24/33	보성	구름많음	23/33
목포	구름많음	25/31	순천	구름많음	24/30
여수	흐리고한때비	25/29	영광	구름많음	24/31
나주	구름많음	23/33	진도	구름많음	24/30
완도	구름많음	24/31	전주	구름많음	25/32
구례	흐리고한때비	23/30	군산	구름많음	24/30
강진	구름많음	23/30	남원	흐리고한때비	23/32
해남	구름많음	23/31	축산도	구름많음	24/30
장성	구름많음	23/31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남~남서	0.5~1.0	남~남서	0.5~1.0
남부	면바다	남~남서	1.0~2.0	남~남서	1.0~2.0
남해	앞바다	남~남서	0.5~1.0	남~남서	0.5~1.0
	면바다(동)	남~남서	1.0~2.0	남~남서	1.0~2.0
서부	면바다(서)	남~남서	1.0~2.0	남~남서	1.0~2.0
	면바다(남)	남동~남	1.0~2.0	남동~남	1.0~2.0

◇생활지수

- 위험: 식중독
- 높음: 자외선
- 좋음: 미세먼지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9:07	03:58
	21:15	16:07
여수	04:30	10:38
	16:33	22:58

◇주간 날씨

30(목)	31(금)	9/1(토)	2(일)	3(월)	4(화)	5(수)
☁	☁	☁	☀	☀	☀	☀
25/30	24/30	24/30	23/32	24/31	24/32	23/31



21년 이어온 여름철 단체헌혈 광주 에덴병원(원장 허정) 임·직원들이 28일 단체 헌혈을 하기 위해 병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에덴병원 임·직원들은 21번째 여름철 단체 헌혈행사를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

2009년 쌍용차 파업 진압 이명박 청와대가 최종 승인 경찰인권침해조사위 발표

2009년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원들의 파업농성에 대한 경찰 진압을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최종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28일 쌍용차 노조 파업농성 진압 당시 경찰 공권력 행사에 위법성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재발방지책 마련, 쌍용차 노조를 상대로 한 국가손해배상 청구소송 취하를 권고했다.

조사위에 따르면 당시 경기경찰청은 2009년 6월부터 노사협상 결렬에 대비해 파업농성 강제진압 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당시 경기청은 소속 경찰관 50명으로 구성된 ‘인터넷 대응팀’을 만들어 온라인에 노조원들의 폭력성을 부각하는 댓글과 영상 등을 올리는 등 여론전에도 나섰다.

이어 그해 8월 4~5일 강제진압 작전은 당시 경기청이 삼각기관인 경찰청을 뛰어 넘어 이명박 정부 청와대 고용노동 담당 비서관과 직접 접촉해 최종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강제진압 당시 대테러장비로 분류됐던 테이저건과 다목적발사기를 노조원들에게 사용했다. 경찰이 농성 대응 과정에서 헬기나 물탱크를 장착해 최루액을 섞은 물 약 2만 l 를 공중에서 노조원들을 향해 혼합살수한 사실도 확인됐다. 조사위에 따르면 최루액 주성분인 CS와 용매인 디클로로메탄은 2급 발암물질이다. /연합뉴스

내달 1일까지 비...일부지역 집중호우 조심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9일은 전남 일부 지역에서 10~50mm의 비가 내리겠으며, 30일에는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다”고 28일 예보했다. 29일에는 곡성, 고흥, 구례, 여수 등 전남 일부지역에 최대 5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청 관계자는 “지난 27일까지는 우리나라 남쪽의 북태평양고기압과 북쪽의 차가운 이동성 고기압 사이에서 형성된 정체전선이 북상과 남하를 반복하면서 광주·전남에 많은 비가 내렸다”면서 30일부터 예보된 비는 적은 강수량이 예상되지만 일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릴 수도 있으며, 특히 9월까지는 집중 호우시 강수패턴이 유지될 것으로 보여 호우 피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28일 오전 9시께 광 인근해상에서 제21호 태풍 ‘제비’(JEBI)가 발생했다. 이 태풍은 다음달 2일 일본 오키나와 인근으로 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비는 일본을 향해 올라오고 있지만 발생 초기라서 정확한 예측은 어려운 상태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이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아파트 재건축에 밀린 경양초, 광주예고 부지로 옮긴다

시교육청·학부모 이설 합의 단, 학습권 침해 등을 이유로 경양초 이전에 반대했지만, 경양초 건물은 노후한데다 단지 신축 후 학급 증설이 불가피해 학교 이설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 재건축으로 최고 29층 등 아파트 38개 동이 들어서는데, 일반분양 가구까지 포함하면 경양초의 경우 10~15개 학급 증설이 불가피하다. 애초 경양초 현 부지에 건물을 재배치하고 일부 중·개축하려고 했으나 초고층 아파트에 둘러싸여 일조권과 조망권이 피해를 본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학부모들은 경양초 신축 기간(약 3년) 학생들을 인근 학교들로 분산 배치하는 방안

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시교육청과 의견을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용지부담금과 공사기간 학생 재배치 비용(스쿨버스 운영비 등)은 100억원 수준으로 재건축조합과 시교육청이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개발 압력에 밀려 인근으로 학교를 옮겨가고 초고층 아파트 숲에 둘러싸여 사실상 맹지로 전락할 현 학교부지 처리에서는 양측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산부인과의사회 “임신중절수술 전면 거부”

낙태 수술 처벌 행정규칙 반발 고 28일 밝혔다.

의사회는 성명서에서 “입법 미비 법안을 앞세워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으로 규정하고 처벌하겠다는 정부의 고집 앞에서 1개월 자격 정지의 가혹한 처벌을 당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채희중 기자 chae@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가 낙태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보고 수술한 의사의 자격을 1개월 정지하는 행정규칙을 지난 17일 공포한 데 대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전면 거부하겠다”

Approved Partner
Hearing Instrument
SIEMENS

130년 전통 독일 지멘스 보청기

'새로운 소리를 듣다'

첫째. 한 달 착용후 불만족시 100% 환불

둘째. 보청기정부지원금 131만원 신청

셋째. 4개지점 어디서든 A/S 및 소리조절

넷째.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50% 할인

상무지구: 376-1010 / 북구말바우: 268-9001 / 광산·수완: 954-1030 / 전대의대: 430-8801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옥상) 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탑이 없는 평슬라브 주택은 갈라강판지붕공사

- ▶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 ▶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 ▶ 반영구적 최신공법의 특수방수!

- ▶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가능!
- ▶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 ▶ 냉·난방비 절감효과!

스틸방수 및 지붕공사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트윈스틸

(모던건설)

시공문의 H.010-9229-3530